

“프로가 퇴직연금 알아서 골러 줍니다” 등직한 우리銀

우리은행이 고객의 생애주기와 투자성향에 맞춘 표준화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으로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전문가와 AI 기반 자산관리 체계 구축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리의 ‘상시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기여형 IRP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연금자산 관리 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을 제공한다. 우리WON뱅

고객 생애주기·투자성향 맞춰 ‘전문가 Pick 서비스’ 적립기 5개, 인출기 3개 유형 중 고르면 적척 운용 4대은행 유일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면제 혜택도

킹 앱의 ‘MY퇴직연금관리’ 배너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전문가 추천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매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은퇴 전 자산을 쌓는 ‘적립기’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인출기’로 나뉜다. 적립기 포트폴리오는 공격투

자형·적극투자형·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등 5개 유형이고 인출기 포트폴리오는 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등 3개 유형이다. 은퇴 단계와 위험 선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이 ‘상품 추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단순히 상품 추천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AI 기술과 전문가 기반의 고객 중심 개선된 서비스로 고객이 장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토털 연금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AI 기반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자동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4대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가입 금액 제한 없는 비대면 IRP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시행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우리은행은 올해부터 ‘전문가 Pick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우리은행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빠르게 커졌지만, 자금 ‘격벽’은 여전히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연기금·보험 등 장기자금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장의 외형은 커졌는데, 정작 불황에도 마르지 않는 ‘모험자본’의 기반은 취약하다는 얘기가.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발간한 ‘보험회사의 장기 모험자본 공급 해외 사례와 시사점’에서 모험자본 생태계를 키우려면 벤처투자 출자자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초장기 혁신펀드와 보험회사 자금을 실물 혁신 분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를 ‘장기 모험자본’ 공급자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보험사는 장기간 쌓이는 보험료를 굴리는 만큼, 단기간 수익보다 시간이 필요한 혁신기업·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여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를 ‘제도’로 밀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모험자본’ 후보 보험회사 부상

美·日 시장형·자율 조정 프랑스·英, 장기 투자 유도

프랑스는 재무부가 펀드를 인증해 주는 ‘Tibi 라벨’을 운영하면서 보험사와 연기금의 자금이 기술기업 성장자본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열었다. 영국도 2024년 ‘Solency UK’ 도입으로 보험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부 완화해 사회주택이나 친환경 인프라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없이도 보험사가 스스로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방식이 함께 존재

한다. 보험사는 만기 구조와 현금흐름을 따져 자산과 부채를 맞추는(ALM) 운용 원칙에 따라, 시장 상황이 맞으면 사모신용, 인프라, 임팩트 투자 같은 장기 자산 비중을 자율적으로 늘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보험업권 운용자산이 약 1100조 원에 달하지만, K-ICS의 높은 요구자본과 IFRS17로 인한 손익 변동성, 자산운용 한도 규제, 국공채 중심 관행이 겹쳐 혁신·전환 분야 장기투자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영국 사례처럼 매칭조정 제도를 인프라 등 장기·안정적 현금흐름 자산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생생적 금융’과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국민성장펀드 같은 플랫폼을 모펀드·앵커 자본으로 활용해 보험사가 공동투자·재간접 구조로 위험을 분산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NH-Amundi “AI가 원전 랠리 키웠다”

빅테크 SMR 투자... 원전 테마 재점화 HANARO 원자력 ETF, 2025년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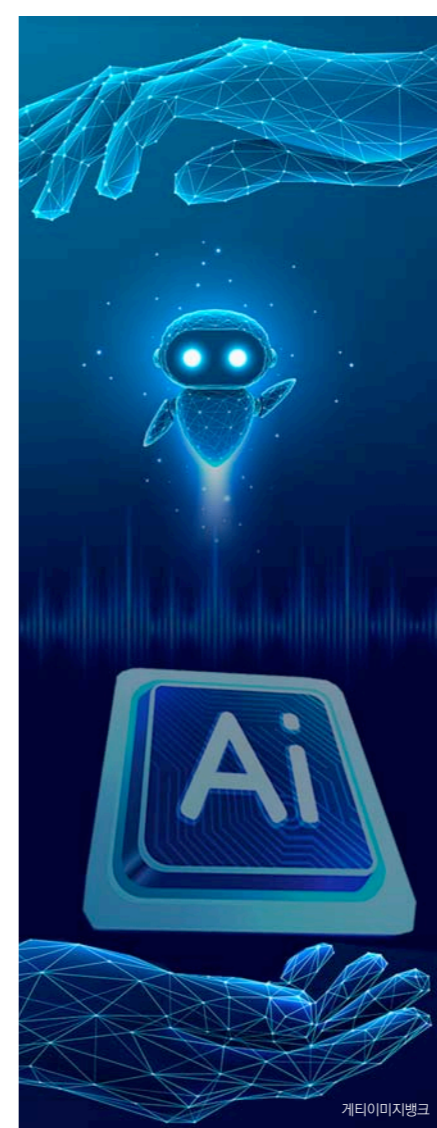
NH-Amundi자산운용이 원자력 섹터의 성과와 올해 투자 포인트를 집중 점검했다.

NH-Amundi자산운용은 9일 발표한 ‘1월 HANARO ETF Monthly Report’에서 지난해 한국 증시를 달군 원자력 랠리가 글로벌 AI 전력 확보 경쟁, 각국의 원전 재가동·확대 기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등 대내외 호재가 맞물린 결과라고 진단했다.

NH-Amundi는 올해를 ‘한국 원전 생태계의 레벨업’ 시기로 봤다. 미국·유럽이 장기간 원전 건설 경험과 인력·공급망이 약화된 반면, 한국은 신고리·신월성 건설과 UAE 바라카 수출 경험을 통해 공적관리, 기자재 조달, 안전 규제 대응 역량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가 빈번했던 서방 프로젝트들과 대비되는 한국의 수행능력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으로 부각될 수 있으며, 미국의 원자력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의 설계·공급망·인력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포트는 또 원자력의 재무상이 ‘AI 전력 수요’라는 구조적 변수를 만나면서 속도가 붙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투



게티이미지뱅크

자 확대와 전력 소모 급증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전원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에 빅테크 기업들의 원전·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투자 계획과 계약이 잇따르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을 인용해 글로벌 원전 발전용량이 2023년 416GW에서 2040년 586~896GW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제시하며, 에너지 안보·탄소·AI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원전 수요를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내 대표 원자력 테마 상품으로 꼽히는 ‘HANARO 원자력Select ETF’가 2025년 연말 기준 연간 181.17% 수익률을 기록하며 코스피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밝혔다. 리포트 기준 상위 편입 종목은 두산에너지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효성중공업, LS ELECTRIC, 현대건설 등으로, 원전 주기기부터 전력기가 송배전·건설까지 밸류체인 핵심에 분산돼 있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2026년은 한국 원전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기저 전원이자 AI 시대의 필수 해법인 원자력 테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